

2022
수특

2022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1 해당화 한용운 내신 수능형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내신, 수능형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당신은 해당화가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어서 오기를 바랐더니, 봄이 오고 보니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합니다.

철 모르는 아이들은 뒷동산에 해당화가 피었다고, 다투어 말하기로 듣고도 못 들은 체하였더니, 야속한 봄바람은 나는 꽃을 불어서 경대 위에 놓습니다그러.

시름없이 꽃을 주워 입술에 대고, '너는 언제 피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꽃은 말도 없이 나의 ㉠ 눈물에 비쳐서 둘도 되고 셋도 됩니다.

-한용운, '해당화'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통해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 ② 대상의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전망이 드러난다.
- ③ 특정 계절을 배경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⑤ 이야기 형식을 통해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을 찾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에 해당한다.
- ② 임과 화자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 ③ 임에 대한 시적 화자의 간절한 사랑에 해당한다.
- ④ 변치 않는 화자에 대한 임의 마음에 해당한다.
- ⑤ 화자가 가고자 하는 이상향에 해당한다.

3. 윗글과 <보기>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 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①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시적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서 안정감을 추구하고 있다.
- ③ 특정 대상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나타나고 있다.
- ④ 대화 형식을 이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유사한 표현을 반복하여 역동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당신은 해당화가 피기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어서 오기를 바랬더니, 봄이 오고 보니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합니다.

철 모르는 아이들은 뒷동산에 해당화가 피었다고, 다투어 말하기로 듣고도 못 들은 체 하였더니, 야속한 봄바람은 나는 꽃을 불어서 경대 위에 놓입니다그러.

시름없는 꽃을 주워 입술에 대고, '너는 언제 피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꽃은 말도 없이 나의 눈물에 비쳐서 돌도 되고 셋도 됩니다.

-한용운, '해당화'

4.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으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 ③ 어순을 도치하여 시어의 의미를 변형하고 있다.
 - ④ 경어체 어미가 각운을 이루어 운율을 형성하였다.
 - ⑤ 선명한 색채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5. 윗글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적 화자는 해당화가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한 입을 기다렸어.
 - ② 시적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어.
 - ③ '봄'은 입과 재회한 약속의 시간이면서, 입이 오지 않아 슬픈 시간이기도 해.
 - ④ 시적 화자는 방안에까지 들어와 봄이 왔음을 알리는 아이들에게 야속함을 느끼고 있어.
 - ⑤ '경대'를 통해서 시적 화자가 여성임을 짐작할 수 있어.

6. 윗글과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 이준관, '구부러진 길'

- ① 윗글과 <보기>는 모두 시적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윗글과 <보기>는 모두 특정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운율이 형성되고 있다.
- ③ <보기>는 윗글과 달리 의태어를 통해 시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④ 윗글은 <보기>와 달리 직유법을 빈번하게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보기>는 윗글과 달리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였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당신은 해당화가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 어서 오기를 바랐더니, ㉢ 봄이 오고 보니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합니다.

㉣ 철 모르는 아이들은 뒷동산에 해당화가 피었다고, 다투어 말하기로 ㉤ 듣고도 못 들은 체 하였더니,

야속한 봄바람은 나는 꽃을 불어서 경대 위에 놓습니다그러.

시름없이 꽃을 주워 입술에 대고, '너는 언제 피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꽃은 말도 없이 나의 눈물에 비쳐서 돌도 되고 셋도 됩니다.

-한용운, '해당화'

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재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 ② 특정한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였다.
- ③ 모순 어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인상 깊게 표현하고 있다.
- ④ 자연물을 매개로 하여 임에 대한 기다림과 슬픔을 형상화하였다.
- ⑤ 시적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형태를 취하였다.

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당신이 돌아오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렀음을 의미한다.
- ② ㉡ : 당신과의 재회에 대한 갈망에 해당한다.
- ③ ㉢ : 기다리는 임은 아니 오고, 봄이 너무 빨리 온 것에 대한 원망이 나타난다.
- ④ ㉣ : 시적 화자의 처지와 대응하는 대상들로서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한다.
- ⑤ ㉤ : 임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봄이 왔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9. 윗글과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길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 ① <보기>는 윗글과 달리 단호한 어조로 시적 어미를 전달하고 있다.
- ② 윗글과 <보기>는 모두 특정 계절의 이미지를 통해 시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③ <보기>는 윗글과 달리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시적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윗글과 <보기>는 모두 공간 이동에 따른 정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⑤ <보기>는 윗글과 달리 특정 대상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당신은 해당화가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어서 오기를 바랬더니, 봄이 오고 보니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합니다.

철 모르는 아이들은 뒷동산에 ㉡ 해당화가 피었다고, 다투어 말하기로 듣고도 못 들은 체하였더니, ㉢ 야속한 봄바람은 나는 꽃을 불어서 경대 위에 놓습니다그러.
 시름없이 꽃을 ㉣ 주워 입술에 대고, ㉤ '너는 언제 피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꽃은 말도 없이 나의 눈물에 비쳐서 돌도 되고 셋도 됩니다.

-한용운, '해당화'

1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하강 이미지와 상승 이미지를 반복하여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의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③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향의 모습을 낙관적으로 그리고 있다.
- ④ 시적 허용의 수법으로 시적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상징적 의미를 지닌 자연물을 통해 작품의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11. 윗글과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느니 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

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적이 없습니다.

“민적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하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 그를 향거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아아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 한용운, '당신을 보았습니다'

- ① 윗글과 <보기>는 모두 직접 인용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생동감 있게 나타내고 있다.
- ② 윗글과 <보기>는 모두 영탄법을 통해 화자의 깨달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③ 윗글과 <보기>는 모두 경어체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작품에 음악성을 부여했다.
- ④ <보기>는 윗글과 달리 각 연에 동일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시적 어미를 강조하였다.
- ⑤ 윗글은 <보기>와 달리 구체적인 계절적 배경이 등장하고 있다.

1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늦봄에 피어나는 꽃, 기다리는 대상, 조국 광복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 ② ㉡ :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임과의 재회를 상징한다.
- ③ ㉢ : 시적 화자의 마음을 몰라주는 대상이다.
- ④ ㉣ :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행위이다.
- ⑤ ㉤ : 오지 않는 임에 대해 강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1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학 작품에는 작가의 체험이나 가치관 등이 들어 있다. 그러므로 문학 작품을 효과적으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작가의 체험과 관련시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런 관점을 '생산론적 관점'이라고 한다. 한용운의 작품을 생산론적 관점에서 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그가 불교의 승려였다는 것과 동시에 민족 운동가였다는 사실이다. 그는 27세 되던 1905년에 승려가 된다. 그 후 그는 불도에 정진하는 한편 조선 불교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는 1918년 무렵부터 불교계를 대표하여 조국의 독립운동에 힘쓰기도 하였다. 그가 41세 되던 1919년에는 민족 대표로 3.1 독립 운동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그는 이처럼 승려와 민족 운동가로서 일생을 마친 사람이다.

- ① '생산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당신'은 시적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겠군.
- ② 지은이가 승려였다는 점에서 '당신'은 '부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지은이가 '민족 운동가'였다는 사실로 본다면 시적 화자의 간절함을 광복을 위한 간절함으로 해석될 수 있겠군.
- ④ 지은이가 승려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은 화자가 절대적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⑤ '생산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봄', '당신', '봄바람' 등의 시어의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겠군.

1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 ② 자연 현상을 통해 임에 대한 기다림과 슬픔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독백적 어조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과거 회상의 형식으로 반성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여성적 어조를 통해 섬세한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당신은 해당화가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어서 오기를 바랐더니, 봄이 오고 보니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합니다.

철 모르는 아이들은 뒷동산에 해당화가 피었다고, 다투어 말하기로 듣고도 못 들은 체하였더니, 야속한 봄바람은 나는 꽃을 불어서 경대 위에 습니다그러.
 시름없이 꽃을 주워 입술에 대고, '너는 언제 피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꽃은 말도 없이 나의 눈물에 비쳐서 둘도 되고 셋도 됩니다.

-한용운, '해당화'

15. 윗글과 <보기>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밤의 식료품 가게
 케케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북어들,
 북어들의 일 개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한 개의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움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속의 병어리를 말한 셈이다.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북어들의 뺏뺏한 지느러미.
 막대기 같은 생각
 빛나지 않은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해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느닷없이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 최승호, '북어'

- ①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친숙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색채 대비를 통해 회화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③ 계절감을 통해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화자를 작품의 표면에 나타내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16. 이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적 화자의 정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리움 ② 기다림 ③ 원망
- ④ 외로움 ⑤ 절망

17. <보기>의 밑줄 친 시어 중 ㉠와 그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보기>

㉠ 고향(故郷)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白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宇宙)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風化作用)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조(志操) 높은 개는

㉢ 밭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 고향에 가자.

- 윤동주, '또 다른 고향'

-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및 해설

내신, 수능형 문제

1. <답> ③

이 작품은 봄이라는 특정 계절을 배경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2. <답> ③

'꽃은 말도 없이' 시적 화자의 '눈물에 비쳐서 들도 되고 셋도 됩니다.'라고 했으므로 '눈물'은 '해당화'로서 입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사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 <답> ③

윗글은 입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나타나고, <보기>의 화자는 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4. <답> ④

이 작품은 경어체 어미 '~습니다'가 각운을 이루어 운율을 형성하였다.

5. <답> ④

시적 화자가 방안에까지 들어와 봄이 왔음을 알리는 아이들에게 야속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봄바람에게 야속함을 느낀다.

6. <답> ④

직유법을 빈번하게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윗글이 아니라 <보기>이다.

7. <답> ③

이 작품에는 모순 어법(역설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인상 깊게 표현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8. <답> ④

㉠은 시적 화자의 처지와 대응하는 대상들로서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적 화자의 상황과 대조되는 대상이다.

9. <답> ④

윗글과 <보기>에서는 모두 공간 이동에 따른 정서의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다.

10. <답> ⑤

이 작품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 자연물인 '해당화'를 통해 작품의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11. <답> ②

영탄법을 통해 화자의 깨달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작품은 윗글이 아니라 <보기>에만 해당한다.

12. <답> ⑤

㉠은 오지 않는 입에 대해 강한 원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입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13. <답> ①

'생산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당신'은 시적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닌 '조국', '조국 광복', '부처', '절대자'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14. <답> ④

이 작품에서 과거 회상의 형식으로 반성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15. <답> ④

두 작품은 모두 화자를 작품의 표면에 나타내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6. <답> ③

이 작품에서 '원망'의 정서는 화자에게서 찾을 수가 없다.

17. <답> ⑤

윗글의 '당신'과 ㉠의 '고향'은 모두 시적 화자가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에 해당한다.

서지정보
저자 이재균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6673-670-4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1.02.22
가격 1500원

